

## 현대 독일어 동사 관용구의 결합가 연구

김수남(중앙대)

### 1. 머리말

최근 외국어로서의 독일어(Deutsch als Fremdsprache: DaF) 수업에서 관용어론(Phraseologie) 분야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 분야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하나는 관용어에 대한 교육/수업이 단지 독일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는 이들을 위한 고급과정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관용어에 대한 인식여부가 언어능력의 척도(Gradmesser)가 된다고 단호하게 주장하는 견해이다. 관용어에 대한 교육이 외국어 수업의 건포도(Rosinen)라고 인정은 하지만, 이에 대한 교육이 초급과정에서는 무리라고 여기는 첫 번째 견해와, 관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언어표현이 더 아름다워진다고 여기는 두 번째 견해는 분명 극단적인 대립을 보여준다. 이처럼 관용어에 대한 교육은 보는 관점에 따라 외국어로서의 독일어를 공부하는 이들에게 'eine harte Nuß'(=ein schwieriges Problem, eine unangenehme Aufgabe) 혹은 'Stolperstein'(=ein Problem, an dem j-d scheitert/scheitern kann) 일 수도 있고, 외국어 수업에 있어서 'Salz in der Suppe'(=das eigentliche Interessante an einer Sache) 일 수도 있다. 우리는 후자의 입장에서 이 글을 쓰고자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독일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관용어(Phraseologismen)를 자주 접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아울러 관용어는 결코 배우기 힘든 대상이 아니라 반복학습을 통해 충분히 습득가능한 언어요소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결합가 이론(Valenztheorie)을 토대로 독일어 관용구의 표현구조/통사구조와 내용구조/의미구조를 파악해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를 배우는 이들이 구조적으로 복잡하다고 여기는 관용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는 수많은 독일어 관용어들 가운데 동사를 구성성분으로 갖는 관용어, 즉 구(句)의 자격을 갖는 관용어 부류로서 문장에서 쓸어기능을 하는 동사 관용구만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한다. 우리는 관용구의 결합가 기술을 위해 동사의 사전기술을 위해 제안된 G. Helbig(1983)의 6단계 모형(6-Stufen-Modell)이 동사 관용구의 기술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B. Wotjak(1992)의 견해에 따라 그녀가 제시한 일종의 '다단계 모형'(Mehrstufenmodell) 혹은 '다층위 모형'(Mehrebenenmodell)을 분석의 토대로 삼는다. 하지만 교수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B. Wotjak(1992)의 모형을 약간 변형하여 몇 개의 동사 관용구를 시범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기술모형은 동사 관용구의 논리-의미적 결합가(logisch-semantiche Stelligkeit)와 통사적 결합가(syntaktische Wertigkeit)에 대한 정보는 물론, 관용구의 통사기능·범주 및 의미기능·범주 그리고 그에 따른 통사적 문장모형(syntaktisches Satzmodell) 및 의미적 문장모형(semantisches Satzmodell)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모형은 무엇보다도 독일어를 가르치는 이들이 학생들에게 독일어 관용어의 구조를 보다 쉽게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국내에서 독일어 관용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단계에 머물고 있다. 결합가 이론을 토대로 독일어 관용어를 연구한 논문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독일어와 한국어의 관용어 비교연구는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국내 연구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는 이 글에서 그동안 국내에서 이론적으로 충분히 연구된 결합가 이론을 바탕으로 독일어 관용구의 표현 및 내용구조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장차 독일어와 한국어의 관용어를 대조·분석하여 독·한 관용어사전(Phraseologisches Wörterbuch deutsch-koreanisch)을 편찬하기 위한 이론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 2. 결합가 이론에 의한 동사 관용구의 연구

결합가 이론은 이미 1970년대 중반에 국내에 소개되었으며, 지금까지 여

러 학자들에 의해 충분히 연구되었다. 결합가 이론이 단순히 언어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이 아니라 한 언어의 복잡한 문법 현상을 설명하는데 많은 장점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의 언어학자들에 의해 증명되었다. 따라서 결합가 이론이 결코 진부한 이론이 아니라 인지언어학과 컴퓨터 언어학의 발달에 도움을 주는 살아있고(lebendig) 실제적인(aktuell)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 결합가 이론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 언어학의 여러 분야와 밀접한 관련속에 연구되고 있다. 특히 결합가 이론은 언어학의 독자적인 분야로 등장한 관용어론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되고 있다.

결합가 이론을 토대로 한 독일어 관용어 연구는 이미 1983년 소련 언어학자들 S.M. Pankratova(1983)와 M.V. Torzova에 의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독일의 W. Fleischer(1984)에 의해 수용되어 B. Wotjak(1985;1986;1992), J. Sternkopf(1988; 1992), J. Möhring(1991)에 의해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핀란드의 언어학자 J. Korhonen(1988;1990)과 M.-L. Piitulainen(1992;1996)에 의해 독일어와 핀란드어의 대조분석 및 R. Hessky(1988)에 의해 독일어와 헝가리어의 대조분석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 2.1. 동사 관용구의 중요한 개념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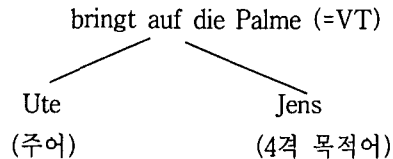
‘Phraseologismen’은 언어학 문헌에서 흔히 ‘idiomatische Redewendungen’, ‘phraseologische Einheiten’, ‘feste Wortverbindungen’, ‘Phraseme’ 따위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우리는 W. Fleischer(1982)나 B. Wotjak(1992,1996)의 견해에 따라 이 글에서 ‘Phraseologismen’을 연어(Kollokationen), 기능동사구(Funktionsverbgefüge: FVG), 단어價속어(Wortidiome 혹은 Phraseolexeme:PL), 문장價속어(Satzidiome), 격언(Spruchwörter) 등을 포괄하는 상위개념(Oberbegriff)으로 사용하며, 이들 가운데 PL을 관용어 분야의 중심영역으로 간주한다. PL은 품사에 따라 세분될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문장에서 전체로서 술어기능을 하는 PL, 즉 동사 관용구(이하에서는 ‘vPL’로 칭함)만을 대상으로 고찰한다. 그 이유는

이 유형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이에 준하여 그 처리 기준을 삼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2.2. 관용구의 통사·의미적인 특성

우리는 vPL의 통사·의미적인 특성을 FVG와 비교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이점출 1994:66-73).

1) 결합가 이론의 관점에서 vPL은 - 일반동사나 FVG처럼 - 전체로서 술어(Prädikat)를 형성하며, 문장의 구조적 중심으로서 일정한 수의 보충어를 요구하는 결합가 보유어(Valenzträger:VT)의 역할을 한다.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보면, vPL은 최고(maximal) 3개의 보충어(Ergänzung)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vPL을 내포하고 있는 예문 Ute bringt Jens auf die Palme.는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Keil 1997:60).



이 도식은 vPL 'auf die Palme bringen'이 두 개의 의무적인 보충어, 즉 주어와 4격 보충어를 취하는 2가의 vPL임을 보여준다. 여기서 통사적 결합가(보충어의 수)에 따른 vPL과 FVG의 예를 들어보자.

1가의 FVG와 vPL:

FVG: zur Anwendung kommen/gelangen  
zur Abstimmung kommen/gelangen

vPL: auf den Hund kommen(=herunterkommen)  
über die Runden kommen(=Schwierigkeiten meistern)

2가의 FVG와 vPL:

FVG: etw. in Abrechnung bringen

etw. zur Anwendung bringen

vPL: j-n auf den Hund bringen(=j-n ruinieren)

(→ etwas bringt j-n auf den Hund)

etw. unter die Leute bringen(=dafür sorgen, daß etwas  
bekannt, verbreitet wird)

(→ etwas bringt j-n unter die Leute)

3가의 FVG와 vPL:

FVG: etw. unter Beweis stellen

etw. in Bewegung setzen

vPL: j-m auf den Schlips treten(=j-n kränken, beleidigen)

(→ j-d tritt j-m mit etw. auf den Schlips)

j-m den Kopf verdrehen(=j-n verliebt machen)

(→ j-d verdreht j-m den Kopf mit etw.)

2) FVG와는 달리, 하나의 vPL이 여러 가지 통사구조를 갖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vPL 'j-n auf die Palme bringen'은 통사적으로 2가 혹은 3가로 실현될 수 있다. 통사적으로 2가로 실현된 경우, 즉 두 개의 의무적인 보충어를 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etwas bringt j-n auf die Palme**

(=etwas bringt j-n in Wut)

통사적 문장모형: PL - Sn - Sa

예문: Seine dummen Späße bringen mich immer gleich auf die  
Palme.

통사적으로 3가로 실현된 경우, 즉 세 개의 보충어(2개의 의무적 보충어와 1개의 수의적 보충어)를 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j-d bringt j-n (mit etw.) auf die Palme**

(=j-d macht j-n (mit etw.) wütend)

통사적 문장모형: PL - Sn - Sa - (pS)

예문: Er brachte sie mit seinem Gerede langsam auf die  
Palme.

두 통사구조간의 관계는 변형(Umschreibung)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3가로 실현된 통사구조의 전치사 보충어는 변형을 통해 주어로 이동  
할 수 있다.

Du bringst mich mit deinem unqualifizierten Geschwätz auf die  
Palme.

→ Dein unqualifiziertes Geschwätz bringt mich auf die Palme.

3) FVG와 마찬가지로, vPL도 흔히 단순동사로 대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FVG 'zum Ausdruck bringen'이 단순동사 'ausdrücken'에 의해  
대체될 수 있듯이 'j-n auf die Palme bringen'은 단순동사  
'verärgern'으로 대체될 수 있다. 하지만 FVG는 주된 의미를 지니는  
명사성분(여기서 Ausdruck)과 관련된 동사로 대체되지만, vPL의 경  
우엔 명사성분(여기서 Palme)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단순동사로 대체  
된다.

4) vPL과 FVG는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단어 복합체(komplexe  
Wörter/Mehrworteinheiten) 혹은 단어군 어휘소(Wortgruppen-  
lexeme)이다. 즉 vPL와 FVG는 하나의 의미단위(Bedeutungs-  
einheit)를 표현한다. 그러나 vPL은 고립된 문맥에서만 등장하지만, FVG는  
언어내적인 가능성에서 성장하여 고유한 체계를 발전시켰다. FVG는 구성  
성분의 부분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FVG전체의 의미를 얻을 수 있지만,  
vPL의 의미는 개별 성분들로부터 유추될 수 없으며 단지 전체적으로만 파  
악될 수 있다(이점출 1994:34, 이점출 1994:73).따라서 vPL의 개별 성분들은

의미적으로 고립되어(isoliert) 있다고 말할 수 있다.

5) FVG의 주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명사성분은 주로 동사나 형용사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의미가 전의되어 사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FVG를 구성하는 명사는 주로 동사에서 파생된 추상명사(Abstrakta)이며, vPL을 구성하는 명사성분은 주로 구체명사(Konkrete)이다. 이 구체명사들은 원래의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에 이들의 의미는 관용구 전체로서만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에 따라 FVG와 vPL의 구별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j-n in Fahrt bringen'과 같은 단어 복합체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FVG의 범주에 속하지만(왜냐하면 명사성분 'Fahrt'가 단순동사 'fahren'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전체 의미에서는 vPL에 속한다(왜냐하면 명사성분 'Fahrt'가 본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Wut'와 'Stimmung'의 의미로 전의됨)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형태-통사적 기준보다 의미적 기준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이러한 단어 복합체를 vPL의 범주에 넣고자 한다. FVG와 vPL간의 구분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 않기로 한다.

6) FVG와 마찬가지로, vPL도 상태, 상태변화 그리고 상태 및 상태변화의 야기를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vPL과 FVG는 지속태(durativ), 기동태(inchoativ), 그리고 사역태(kausativ)와 같은 상이한 동작태(Aktionsarten)를 나타낼 수 있다. 이들의 경우 동작태가 조어론(Wortbildung)에서 처럼 접두사(Präfix)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동사 성분의 교체를 통해 표현된다.

FVG : Angst haben (durativ)

Angst bekommen (inchoativ)

j-n in Angst versetzen (kausativ)

vPL : auf der Palme sein (=wütend sein; durativ)

auf die Palme gehen (=wütend werden; inchoativ)

j-n auf die Palme bringen (=wütend machen; kausativ)

7) FVG는 주된 의미를 지닌 명사로 인해 의미유추가 가능한 반면, vPL은 완전 숙어화된(vollidiomatisiert), 즉 의미가 전의된(übertragen) 것이 대부분이다.

FVG: zum Ausdruck bringen (=ausdrücken)  
zur Anwendung kommen (=angewendet werden)  
Beachtung finden (=beachtet werden)

vPL: j-m einen Korb geben (=einen Mann abweisen, etwas ablehnen)  
j-m Sand in die Augen streuen (=j-n täuschen)  
j-m den Kopf waschen (=j-n tadeln)  
j-m unter die Arme greifen (=j-m in einer Notlage greifen)

하지만 부분적으로 숙어화된(teilidiomatisiert), 즉 구성성분(특히 동사성분)을 통해 어느 정도 의미유추가 가능한 vPL도 있다. 이들은 주로 비유적 관용어(phraseologische Vergleiche)에서 나타난다.

**reden** wie ein Buch(=unaufhörlich, sehr viel reden)  
**sich freuen** wie ein Schneekönig(=sehr sehr freuen)  
**zittern** wie Espenlaub(=vor Kälte/Angst sehr zittern)  
**sich ärgern** schwarz / grün und gelb (=sich sehr ärgern)

8) FVG와는 달리, 하나의 vPL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vPL 'j-n in Fahrt bringen'은 긍정적인 의미('누구를 기분 좋게 하다')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누구를 화나게 하다')도 가지고 있어서 문맥적인 상황에서의 이해가 요구된다.

j-n in Fahrt bringen (ugs.)  
① (=j-n in Schwung, in Stimmung bringen):  
Die heißen Rhythmen der Kapelle brachten die Gäste



schnell in Fahrt.

② (=j-n wütend machen):

Ihre ständigen Sticheleien brachten ihn allmählich in Fahrt.

in Fahrt kommen/geraten (ugs.)

① (=in Schwung, in gute Stimmung kommen):

Wenn ihr Mann ein paar Gläschen getrunken hat, kommt er ganz schön in Fahrt.

② (=wütend werden):

Allmählich kam auch der Schaffner in Fahrt und drohte den Burschen, die Polizei zu holen.

in Fahrt sein (ugs.)

① (=in Schwung, in Stimmung sein):

Die schwedische Mannschaft war toll in Fahrt und deklassierte ihren Gegner förmlich.

② (=wütend se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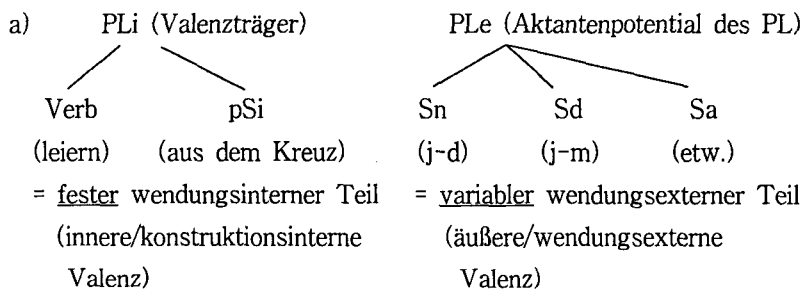
Die Portiersfrau war auch in Fahrt und schimpfte hinter ihm her.

9) FVG는 공식적인 관청어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vPL은 일상어 (Umgangssprache)에서 주로 사용된다. vPL의 구성성분인 명사와 동사 간에는 아무런 어원상의 친족관계가 없으며, vPL의 생성과정은 통시적으로 (diachronisch), 즉 역사적인 관점에서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관용어의 근원(Herkunft)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2.3. 동사 관용구의 통사적 결합가

흔히 vPL의 통사적 결합가와 관련하여 두 가지 결합가, 즉 외적 결합가 (äußere/wendungsexterne/konstruktionsexterne Valenz)와 내적 결합가

(innere/wendungsinterne/konstruktionsinterne Valenz)가 구분된다 (Fleischer 1982:164f., Fleischer 1997:159f., B. Wotjak 1922:55, Burger 1998:176f.). 여기서서는 외적 결합가가 우리 관심의 대상이다. 내적 결합가와 외적 결합가의 관계는 다음 도식에 의해 명시될 수 있다(Wotjak/Richter 1988:6).



b) Er leiert seinem Vater das Geld aus dem Kreuz.

PLi = Verb + pS (aus dem Kreuz leiern)

PLe = Sn (hum); Sd (hum); Sa (physikalisches Objekt)

(Sn: er/der Sohn/das Kind ...)

(Sd: dem Vater/dem Chef/der Mutter ...)

(Sa: das Geld/das Auto/den Betrag ...)

통사적 결합가(Wertigkeit), 즉 외적 결합가를 달리하는 vPL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Wotjak/Richter 1993:43).

④ j-m rutscht das Herz in die Hose

(=j-d bekommt große Angst)

innere Valenz:

Verb - Sn - pS

äußere Valenz/Aktanten:

Sd (Hum)

예문: Wenn ich an die Fahrprüfung denke, rutscht mir gleich das Herz in die Hose.(Duden 1992:327)

㉞ j-m Sand in die Augen streuen(=j-n täuschen)

*innere Valenz:*    *äußere Valenz/Aktanten:*

Verb - Sa - pS    Sn (Hum) - Sd (Hum)

예문: Willst du mich beruhigen, oder willst du mir nur  
Sand in die Augen streuen.

㉟ j-m etw. in die Schuhe schieben

(=j-m die Schuld an etw. geben)

*innere Valenz:*    *äußere Valenz/Aktanten:*

Verb - pS    Sn (Hum) - Sd (Hum) - Sa (Abstr)

예문: Die Geschichte mit der frisierten Spesenabrechnung  
konnten sie ihr nicht in die Schuhe schieben.(Duden  
1992:639)

위의 예들이 보여주듯이 vPL은 - 일반동사나 FVG처럼 - 고정된 주어를 갖는 ㉜와 같은 1가의 vPL, ㉞와 같은 2가의 vPL 그리고 ㉟와 같은 3가의 vPL로 분류될 수 있다. 1가의 PL은 구조내적으로(wendungsintern) 이미 고정된 주어를 내포하고 있는 PL(예를 들어 j-m stehen die Haare zu Berge, j-m ist eine Laus über die Leber gelaufen)과 주어를 내포하지 않는 vPL(예를 들어 alt aussehen, in der Tinte sitzen, Blut und Wasser schwitzen)로 세분될 수 있다. 전자는 일명 'festgeprägte prädikative Konstruktionen'(fpK) 혹은 'nicht-infinitivfähige PL'로 명명된다. 2가와 3가의 PL은 구조내적으로 주어를 내포하지 않는 PL이어서 'infinitivfähige PL'이라 일컬어진다.

#### 2.4. 동사 관용구의 의미적 환경

동사 관용구의 의미적 환경(semantische Umgebungen)은 관용어를 이해 하는데 중요하다. 특히 사전에서 표제어로 제시된 동사 관용구의 형태는 의미적 환경과 관련하여 외국인 학습자를 혼란에 빠뜨린다. 4격 보충어가

유생물인지 무생물인지에 따라 관용구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 개의 동사 관용구를 예로 제시한다. 1a), 2a), 3a)는 사람(+hum)을 4격 보충어로 갖는 경우이며, 1b), 2b), 3b)는 사물(-hum)을 4격 보충어로 취한다. 현행 독일어 관용어 사전에서 제시된 표제어(Nennform) 형태는 외국인 독일어 학습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므로 소괄호 ( )안에 화살표 →를 통해 변형한 교수법적으로 사용가능한 형태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1a) **j-n** auf die Beine bringen

(=j-n zur Teilnahme an einer Veranstaltung veranlassen)

(→ j-d bringt j-n auf die Beine)

예문: Wie bringen wir die Massen auf die Beine?

1b) **etwas** auf die Beine bringen

(=etwas in erstaunlicher Weise zustande bringen)

(→ j-d bringt etwas auf die Beine)

예문: Eine kleine Abschlußfeier werden wir schon auf die Beine bringen.

2a) **j-n** an den Mann bringen(=j-n verheiraten)

(→ j-d bringt j-n an den Mann)

예문: Er würde viel darum geben, seine häßliche Tochter möglichst bald an den Mann zu bringen.

2b) **etwas** an den Mann bringen (ugs.)

① (=etwas verkaufen):

(→ j-d bringt etwas an den Mann)

예문: Seit Tagen bemühte er sich, seinen alten VW an den Mann zu bringen.

② (=im Gespräch o.ä etwas mitteilen, äußern, erzählen):

(→ j-d bringt etwas an den Mann)

예문: Ständig versuchte der Friseur, seine alten Häschenwitze an den Mann zu bringen.

3a) j-n über die Runden bringen

(=j-m helfen, etwas durchzustehen)

(→ j-d bringt j-n über die Runden)

예문: Ich konnte ihm etwas Geld geben, mein Freund  
vermittelte ihm Gelegenheitsarbeiten, und so haben  
wir ihn damals ganz gut über die Runden gebracht.

3b) etwas über die Runden bringen

(=etwas [trotz Schwierigkeiten] zustande bringen)

(→ j-d bringt etwas über die Runden)

예문: Alle waren froh, daß man die Festspiele schließlich  
doch noch über die Runden gebracht hatte.

2.5. B. Wotjak(1992)의 다단계 모형에 따른 동사 관용구 분석

동사의 사전기술을 위해 G. Helbig(1983)가 제안한 6단계 모형은 B. Wotjak(1992)에 의해 vPL의 기술에도 적용되었다. Wotjak(1992)이 vPL의 표현 및 내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제시한 다층위 모형(Mehrebenenmodell)은 아래와 같은데, 이때 사용된 약어는 다음과 같다 (ADESSE: Prädikat/Funktor(=sich befinden), CAUS: Prädikat/Funktor (-verursachen/bewirken), LOC: semantischer Kaus (-Ortsangabe), PL: Phraseolexem, Sn: Substantiv im Nominativ, Sa: Substantiv im Akkusativ, Sd: Substantiv im Dativ, ti: Zeitpunkt i, ti + i: Zeitpunkt, der nach i liegt, Vf: finite Verbform).

Mehrebenenbeschreibung von verbalen Phraseolexemen

(B. Wotjak 1992:91.f.)

j-m **Beine machen**; R a b c → 2

I a) [(a ADESSE b1)]ti & [(c CAUS(a non ADESSE b1 /  
ADESSE

b2)]ti + k = Feld des VERJAGENS

- b) Prädikatsmodifikatorseme:  
für CAUS = nachdrücklich, auffordernd (illokutive Funktion:  
Drohung, Warnung)
- c) Somatismus (*Beine*)

II a) semantisch-funktionale Bestimmung der Argumente

- a → ADRESSAT (der Drohung) / AGENS der gewünschten Fortbewegung
- b1 → LOC1
- b2 → LOC2
- c → AGENS

b) semantisch-kategoriale Bestimmung der Argumente

- a → hum, eigenfortbewegend
- b1 → Aufenthaltsort von a
- b2 → ---
- c → hum.

c) semantisches SATZMODELL: AGENS - ADRESSAT -  
LOKATIV

III a) syntaktisch-funktionale Bestimmung der Argumente

- a → Dativobjekt
- b1 → ---
- b2 → ---
- c → Subjekt

b) syntaktisch-kategoriale Bestimmung der Argumente

- a → Sd
- b1 → ---
- b2 → ---
- c → Sn

c) syntaktisches SATZMODELL: PL[Vf - Sa] - Sn - Sd

IV a) Der Alte drohte mit dem Krückstock: "Ich werd euch gleich *Beine machen*, wenn ihr die Katze nicht endlich in Ruhe laßt!"

Hau ja ab, sonst *mach* ich euch *Beine*!

Du sollst mal sehen, wie schnell ich denen *Beine mache*!

- oft mit einer Drohgebärde verbunden, wenn der Angesprochene Adressat der Rede von Sn und Adressat der Drohung ist;
- i.d.R. im Futur gebraucht / in Aussagesätzen mit Zukunftsbedeutung;
- häufig mit "gleich" gebraucht bzw. mit "Nebensatz mit wenn"
- im Passiv nicht gebräuchlich;

b) umg: jmdn. durch angeordnete Handgreiflichkeit ... zum Weggang bewegen; jmdn. (durch angedrohte Handgreiflichkeit ...)

*fortjagen, wegjagen*

B. Wotjak(1992)이 vPL의 기술을 위해 제시한 이 모형은 Helbig(1983)의 모형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통사 및 의미적 정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의미적 정보를 제공하는 Helbig(1983)의 III단계와 IV단계가 B. Wotjak(1992)에서는 II단계에서 상하로 통합되어 나타나고, Helbig(1983)의 I단계와 VI단계는 B. Wotjak(1992)에서 표제어 옆에 통합되어 나타난다.

우리는 교수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B. Wotjak(1992)의 모형을 약간 변형하고자 한다. 즉 우리가 제안하는 기술모형은 B. Wotjak(1992) 모형의 I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논리-의미적 결합가(logisch-semantische Stelligkeit)를 I단계로 내세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동사 관용구의 논리-의미적 결합가와 통사적 결합가(syntaktische Wertigkeit)는 물론, 통사기능·범주 및 의미기능·범주 그리고 그에 따른 통사적 문장모형(syntaktisches Satzmodell) 및 의미적 문장모형(semantisches Satzmodell)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B. Wotjak(1992)의 모형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우리가 제안하는 모형에 따라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몇 개의 vPL을 기술해 보기로 하자. 이때 사용된 약어에 대한 설명은 B. Wotjak(1992)을 참고하면 된다(AO: Akkusativobjekt, DO: Dativobjekt, pO: präpositionales Objekt, AG: Agens, ADR: Adressat, INSTR: Instrument, Gps: Gegenstand psychischer Prozesse, Tps: Träger psychischer Prozesse, P: semantisches Prädikat, PL: Phraseolexem, vPL: verbales Phraseolexem, Sn: Substantiv im Nominativ, Sa: Substantiv im Akkusativ, Sd: Substantiv im Dativ, pS: Präposition + Substantiv, sem. Satzmodell: semantisches Satzmodell, synt. Satzmodell: syntaktisches Satzmodell).

1가의 vPL:

**j-m lacht/hüpft das Herz im Leib[e]** (umg.)

'j-d freut sich sehr, j-d ist sehr erfreut'

I R a → 1

II a → Tps // Hum

sem. Satzmodell: P - Tps

III a → DO // Sd

synt. Satzmodell: PL - Sd

예문:

*Als ich die Flugkarte nach Paris auf meinem Geburtstagstisch sah, hüpfte mir das Herz vor Freude.*

*Beim Anblick dieser schönen Gegend lachte uns das Herz im Leibe.*

2가의 vPL:

**etwas geht j-m an die Nieren** (umg.)

'etwas bewegt j-n sehr, etwas regt j-n auf'

I R a b → 2



II a → Gps // Abstr  
 b → Tps // Hum  
 sem. Satzmodell: P - Gps - Tps

III x → Subj // Sn  
 y → DO // Sd  
 synt. Satzmodell: PL - Sn - Sd

예문:

*Der plötzliche Tod des jungen Ehepaares ist allen sehr an die Nieren gegangen.*

*Obwohl ich gut vorbereitet war, ist mir diese mündliche Prüfung doch ganz schön an die Nieren gegangen!*

3가의 vPL:

**j-d bringt j-n (mit etw.) auf die Palme (umg.)**

‘j-d macht j-n (mit etw.) wütend’

I R a b c → 2 + (1)

II a → AG // Hum  
 b → ADR/Tps // Hum  
 c → INSTR/Gps // Abstr  
 sem. Satzmodell: P - AG - ADR/Tps - INSTR/Gps

III a → Subj // Sn  
 b → AO // Sa  
 c → (pO) // (pS; p = mit)  
 synt. Satzmodell: PL - Sn - Sa - (pS)

예문:

*Er brachte sie (mit seinem Gerede) langsam auf die Palme.*

*Du kannst einen wirklich auf die Palme bringen (mit deinen dauernden Nörgeleien).*

### 3. 맺음말

이 글은 독일어 동사 관용구(vPL)를 다층위 기술(Mehrebenenbeschreibung)을 토대로 통사적 및 의미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동사의 사전기술을 위해 G. Helbig(1983)가 제안한 '6단계 모형' 및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그의 모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B. Wotjak(1992)의 '다단계 모형' 혹은 '다층위 모형'에 토대를 두었다. 우리는 B. Wotjak(1992)의 모형을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몇 개의 vPL을 시범적으로 기술하였다.

우리는 문장에서의 동사중심적인(verbozentrisch) 결합가 이론의 견해에 바탕을 두고 vPL을 분석했다. 일반동사나 FVG처럼 vPL도 결합가 보유어(Valenzträger)로서 문장의 구조적인 중심 역할을 한다. 즉 전체로서 일정한 수의 빈자리(Leerstellen)를 열어주는 술어 기능을 한다. vPL은 문장에서 자기 본래의(inhärent) 의미자질과 더불어 자신의 통사적인 환경을 결정짓는다.

또한 우리는 vPL의 분석에서 동사 기술을 위한 결합가 모형이 원칙적으로 vPL의 기술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여긴 B. Wotjak의 견해에서 출발했다.

우리는 관용어(Phraseologismen)을 vPL과 FVG 등에 대한 상위개념으로 보고, 연구대상을 관용어론 분야의 중심영역인 vPL에 한정시켰다. vPL은 구조내적으로 항상 하나의 동사를 내포하고 있으며, 상이한 형태-통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vPL의 통사적 결합가와 관련하여 (구조)내적 결합가와 (구조)외적 결합가를 구분하였으며, 보충어의 수에 따라 vPL을 1가, 2가, 3가의 vPL로 분류하였다.

우리는 이 글이 동사 관용구와 관련한 사전내항(Lexikon-eintragungen)의 배경지식(Hintergrundwissen)을 심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외국어 수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이점출(1994), 독일어 기능동사구 연구, 중앙대학교 출판부, 서울.
- Burger, H.(1998), Phraseologie, Eine Einführung am Beispiel des Deutschen, Berlin.
- Duden Band 11(1992), Redewendungen und sprichwörtliche Redensarten, Mannheim.
- Fleischer, W.(1982), Phraseologie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Leipzig.
- Fleischer, W.(1997), Phraseologie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2., durchgesehene und ergänzte Auflage, Tübingen.
- Helbig, G.(1983), Valenz und Lexikographie, in: DaF 3, 137-143.
- Hessky, R.(1988), "Verbale Phraseologismen: valenzkonform oder nicht?", in: P. Marazovic/W. Teubert (Hg.), Valenzen im Kontrast. Ulrich Engel zum 60. Geburtstag, Heidelberg, 139-149.
- Keil, M.(1997), Wort für Wort, Repräsentation und Verarbeitung verbaler Phraseologismen (Phraseo-Lex), Tübingen.
- Korhonen, J.(1988a), "Valenz und kontrastive Phraseologie, Am Beispiel deutscher und finnischer Verbidiome", in: P. Marzovic/W. Teubert (Hg.), Valenzen im Kontrast, Ulrich Engel zum 60. Geburtstag, Heidelberg 1988, 200-217.
- Korhonen, J.(1988b), "Valenz und Verbidiomatik", in: G. Helbig (Hg.), Valenz, semantische Kasus und/oder "Szenen", Linguistische Studien Reihe A 180, Berlin 1988, 105-118.
- Korhonen, J.(1990), "Zur Syntax und Semantik von Satzidiomen im heutigen Deutsch", in: Proceedings of the Fourteenth International Congress of Linguists, Berlin/GDR, August 10-15, 1987, Bd. II, Berlin, 980-982.
- Martina, K.(1997), Wort für Wort. Repräsentation und Verarbeitung

verbaler Phraseologismen (Phraseo-Lex), Tübingen.

- Möhring, J.(1991), Phraseologischer Thesaurus, Komplexe Mehrebenen-  
darstellung verbaler Emotionsphraseologismen in onomasiologischer  
Anordnung, Diplomarbeit an der Uni. Leipzig.
- Pankratova, S. M.(1983), "Die Valenz semantischer Phraseologismen und  
ihre Bedeutung für den Fremdsprachenunterricht", in: DaF 5,  
277-282.
- Piitulainen, M.-L.(1992): "Zu den Unterschieden in der äußeren  
quantitativen Valenz der deutschen und finnischen Verbidiome", in: J.  
Korhonen(Hg.)(1992), Phraseologie und Wortbildung - Aspekte der  
Lexikonerweiterung. Finnisch-deutsche sprachwissenschaftliche Kon-  
ferenz, 5.-6. Dezember 1990 in Berlin, Tübingen 1992, 39-51.
- Piitulainen, M.-L.(1996): "Zur (äußeren) Valenz der deutschen und  
finnischen Verbidiome", in: J. Korhonen (Hg.)(1996), Studien zur  
Phraseologie des Deutschen und des Finnischen, Bochum(=Studien  
zur Phraseologie und Parömiologie; 10) 1996, 157-244.
- Sternkopf, J.(1988), Valenz und Phraseologizität, in: brücken.  
Germanistisches Jahrbuch DDR-CSSR 1987/88, Prag, 328-337.
- Sternkopf, J.(1992), "Valenz in der Phraseologie?, Ein Diskussions-  
beitrag", in: DaF 4, 221-224.
- Torzova, M. V.(1983), "Zur Valenz der Phraseologismen", in: DaF 5,  
283-287.
- Wotjak, B.(1985a), "Zu Inhalts- und Ausdrucksstruktur ausgewählter  
semantischer Phraseolexeme (1)", in: DaF 4, 216-223.
- Wotjak, B.(1985b), "Zu Inhalts- und Ausdrucksstruktur ausgewählter  
semantischer Phraseolexeme (2)", in: DaF 5, 270-277.
- Wotjak, B.(1986), "Zu einer integrativen Mehrebenenbeschreibung von  
Phraseologismen", in: DaF 6, 326-331.
- Wotjak, B.(1992), Verbale Phraseolexeme in System und Text, Tübingen.
- Wotjak, B.(1996), "Redewendungen und Sprichwörter, Ein Buch mit

sieben Siegeln?", in: Fremdsprache Deutsch Heft 15 (=Redewendungen und Sprichwörter), 4-9.

Wotjak, B./Richter, M.(1988), Deutsche Phraseologismen, Ein Übungsbuch für Ausländer, Leipzig.

Wotjak, B./Richter, M.(1993), Sage und Schreibe, Deutsche Phraseologismen in Theorie und Praxis, Leipzig, Berlin, München, Wien, Zürich, New York.

## **Zusammenfassung**

### **Eine Studie über die Valenz verbaler Phraseolexeme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Kim, Soo-Nam(Chung-Ang Univ.)

Die vorliegende Arbeit setzte sich zum Ziel, deutsche verbale Phraseolexeme(vPL) auf der Grundlage einer Mehrebenenbeschreibung syntaktisch sowie semantisch zu untersuchen. Dabei stützten wir uns vor allem auf die Valenz- und Kasustheorie sowie das 6-Stufen-Modell von G. Helbig(1983) und das Mehrebenenmodell für vPL von B. Wotjak(1992), das seinerseits vom methodischen Ansatz her in engem Zusammenhang zu dem Beschreibungsansatz steht. Aber wir modifizierten teilweise das Modell von B. Wotjak(1992) und stellten einige vPL exemplarisch dar.

Dieser Untersuchung lag eine verbozentrische Auffassung des Satzes zugrunde: Das Verb bildet das organisierende Zentrum des Satzes und ist für die Grundstruktur des Satzes verantwortlich. Das Verb als

Valenzträger eröffnet um sich herum bestimmte Leerstellen, deren Zahl und Art letztlich von der Verbbedeutung her determiniert sind. Auch vPL kann als Valenzträger - wie das Verb - das strukturelle Zentrum des Satzes darstellen, d.h. vPL bildet als Ganzes das Prädikat, das wendungsextern eine bestimmte Zahl von Leerstellen eröffnet und determiniert im Satz mit seinen inhärenten semantischen Merkmalen seine semantische und syntaktische Umgebung.

Bei der Analyse von vPL gingen wir von der Auffassung von B. Wotjak aus, daß Modelle zur Beschreibung von Verben prinzipiell auch auf die Beschreibung von verbalen PL anwendbar sind.

In dieser Untersuchung verwendeten wir - in Anlehnung an B. Wotjak(1996:4f.) - den Terminus 'Phraseologismus' als Oberbegriff, der a) *Kollokationen*, b) *Funktionsverbgefüge* (FVG), c) *Wortidiome* (wortwertige idiomatische Redewendungen oder Phraseolexeme), d) *Satzidiome*(satzwertige idiomatische Redewendungen bzw. kommunikative Formeln/ Routineformeln), e) *Sprichwörter* umfaßt.

Wir beschränkten uns den Gegenstand unserer Untersuchung auf *verbale Phraseolexeme(vPL)*, d.h. wie oben genannte *Wortidiome*. VPL lassen sich primär in bezug auf das wendungsexterne (äußere) Aktantenpotential(PL<sub>e</sub>) und sekundär in bezug auf die interne Komponentenstruktur des PL(PL<sub>i</sub>) klassifizieren.

Unsere Studie soll nicht nur Hintergrundwissen für Lexikoneintragungen vertiefen helfen, sondern auch für den Fremdsprachenunterricht von Nutzen sein.